

“배신 정치” ‘이낙연 신당’에 정치적 기반 광주·전남 ‘부글’

12일 신당 카드 꺼내든 이후 반발...규탄성명 연일 이어져

친이낙연계 인사들도 “당의 분열 초래” 공개적으로 반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에 정치적 기반인 광주·전남 지역정가가 “배신의 정치”라며 분노감을 드러내고 있다. 친이낙연계 인사들마저도 공개적으로 “신당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창당도 하기 전에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든 지난 12일 이후 ‘이낙연 신당’에 대한 반발 성명과 규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민주당을

고치려는 것보다 오히려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전남도당 고문단은 규탄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돕는 것이며, 민주당 분열을 책동하는 배신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당후사”도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당을 나가서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써야 한다. (싸우더라도) 당 안에서 해야 한다”며 당의 분열보다는 화합을 강조했다.

친이낙연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 민주당이라는 배를 지킬 것”이라고 신당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를 이어받아 내리 3선한 이계호 의원의 “2016년 호남에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을 때도 저는 홀로 민주당을 지켰다”며 “지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비판도 거세다.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 동남을 출마예정자인 김성환 전 동구청장은 “이 전 대표의 행보는 당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라며 “민주당 대표였고, 민주당을 정치적 배경으로 꿋꿋하게 걸어왔던 분이므로, 지금이라도 당내 분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인 정준호 변호사도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에 맞서 힘을 보태 싸워도 부족할 판에 당내 분란질도 모자라 제 우

물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락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광주 상임위원장은 “검찰 독재 폭주에 대단결로 맞서 싸워야 할 지금, 모범이 되어 할 당의 원로, 중진이 오히려 욕망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싸우는 신당 창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살리는 정계 은퇴가 답”이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을 최치현 예비후보는 “당과 당원을 배신하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며 “권력지향적이고 오만하고 독단적인 정치 행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최 예비후보는 전날 밤 ‘한 정치인의 몰락을 지켜보며’라는 SNS 글을 통해 “호남인들의 지지로 국회의원이 되고 전남지사를 거쳐 총리가 되고 민주당 당 대표까지 맡았던 분이 당원들을 배신하다니 기가 막히고 허탈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신당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70%에 달할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총계 본다’는 36%였지만 ‘좋지 않게 본다’는 46%로 10%포인트 높았다.

정당 지지자별로 살펴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는 ‘부정적’이 71%에 달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54%는 창당을 좋게 평가했다.

김수권기자



그림자가 만든 언덕길 전남 담양지역에 누적 적설량 6.6cm의 눈이 온 17일 오전 담양군 담양읍내에 심어진 메타세콰이어가 햇빛을 받아 그림자를 만들고 있다.

영하 7.3도 한파에 눈까지...광주·전남 올 들어 가장 추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광주·전남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아침 최저 기온은 전남 화순(백야면)이 영하 7.3도로 가장 낮았다.

곡성 영하 7.1도, 순천 영하 6.8도, 영광 영하 6.6, 장성 영하 6.5도, 담양 영하 6.2도, 함평(월야) 영하 6도, 광주 영하 5.7도, 광양 영하 5.4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

졌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일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전역에는 15일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16일 자정부터 이날 오전 5시 사이 적설량은 영암(시종) 13.5cm, 광주 11cm, 장흥(유치) 10.5cm, 해남(현산) 10.3cm, 화순(이양) 7.9cm, 완도 7.8cm 등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오후 광주, 나주·담양·장성·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진도·신안(흑산면 제외)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도 유지

중이다.

눈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1~7cm가량 내리다 그치겠지만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최고 기온도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러 매우 춥겠다. 건강 관리와 교통 안전에 주의해달라. 가축·농작물·어류 동사와 수도관 동파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한빛원전 1호기 계획예방정비...내년 2월말 발전 재개

한빛원전 1호기(가압경수로형·950MW급)가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발전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1호기가 17일 오전 10시부터 제27차 계획예방정비 착수를 위해 가동을 멈췄다고 밝혔다.

정비 기간에는 원전 연료 교체, 저압터빈 신축이음관 교체,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 원자로 헤드 관통관 육안·체적 검사 등을 통해 설비의 종합적인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빛1호기는 정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

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내년 12월 말에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계획예방정비는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설비검사, 점검, 정비 등의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라며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는 평균 18개월에 1회씩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빛원전은 전체 6호기 중 앞서 2호기에 이어 이번 1호기까지 계획예방정비 착수로 발전을 중단함에 따라 3·4·5·6호기만 가동 중이다.

영광=서희권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통 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